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안

전황수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A Study on the Telematics Service Promotion Policy

Hwang-Soo Chun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Research Team, ETRI

chun21@etri.re.kr

요 약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장은 예상보다 부진하여 정부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고, 서비스 사업자들은 새로운 신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 부진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과 신규 서비스들을 제시하여 대내적으로는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활성화와 대외적으로는 텔레매틱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텔레매틱스 환경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부진요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 발전의 애로요인을 정비하고, 정책 대응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1. 서론

2002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장은 낙관적 예측으로 2005년에 서비스 가입자 수에서는 600만 명을, 위치기반서비스를 포함한 텔레매틱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는 3,4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말기와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시장규모는 2002년에 1,000억원대를 형성하고, 향후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05년에는 약 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 2005년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 가입자 수 현황

TSP사업자	'05.3. 가입자	'05.10.가입자
SK 텔레콤	268,000	428,000
KTF	19,500	45,000
LG 텔레콤	5,000	5,000
현대기아자동차	2,500	5,500
쌍용자동차	200	500
총 계	295,200	484,000

자료 : KOTBAI, 2005.11.

그러나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당초의 전망과는 다르게 매우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서비스 개시 2년이 지난 2004년 4월에야 가입자 수가 15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초 2001년 국내 첫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대우자동차-KTF의 드림넷 서비스 개시 시점에서 예측했던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시장 잠재력에 비해 이렇게 서비스 활성화가

미진한 것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통신요금과 높은 단말기 가격이 단점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인 교통정보 유통체계의 부재, 원천기술 및 전문인력 수급체계의 미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낮은 인식도, 부처간 협력체계 미흡 등도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¹⁾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 가입자는 2005년 10월말 현재 484,000명에 불과하며 이는 '05년 1월 ETRI 예측치 788,261명보다 저조하다. 단말기 가격은 BM의 경우 100~193만원, AM의 경우 30~40만원 선이고, 서비스 요금은 BM의 경우 월 26,000~28,000원, AM의 경우 월 6,000~18,000원 정도이다.

이렇게 텔레매틱스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2005년 10월 가입자가 484,000명에 그쳐 2005년 12월 말 가입자가 513,858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ETRI는 시장현실에 맞춰 시장전망을 변경하였다. ETRI에 따르면 당해년도 총가입자수는 '03년 73,587명, '04년 189,770명, '08년 1,332,450명, '10년 3,129,770명, '12년 5,251,8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03~'07 연평균성장률 86%, '08~'12 연평균성장률 4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합계(서비스 및 단말기 매출액)는 '03년 880억원, '04년 2,044억원, '08년 1조 3,465억원, '10년 3조 634억원, '12년 4조 8,9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03~'07 연평균성장률 73.9%, '08~'12 연평균성장률 38.1%를 기록할 전망이다.

1) 최계영·한은영, 「텔레매틱스 활성화 전략연구 및 파급효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17.